

경기

- 서울 제조업부문 10월 이후 감소세 지속
 - 12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5.6로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 1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6.6%, 대형마트는 0.3% 각각 감소
 - 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물가상승에 인한 소비지출 감소로 예측됨
- 서울의 소비지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1월 서울의 소비지물가는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전도시 평균인 0.1%보다 높게 상승
 - 전월에 비하여 교통, 교양·오락, 교육, 기타 잡비 부문은 하락 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보건의료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한 60.9%로 나타남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2명(-1.5%) 감소한 4,833천명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9천명(-1.4%), 여자는 33천명(-1.6%)이 각각 감소
 - 청년층의 취업자 수 지속적 감소 추세
- 서울의 실업률 전국대비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월 서울의 실업률은 4.2%로 전월동월대비 보합, 남자는 5.2% 상승, 여자는 2.9% 하락

부동산

- 12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3,736,648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6.3% 증가
 - 공공부문은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발주 및 치산치수 부문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 민간부문은 주택 재개발공사 부문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
- 1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다소 완화
 - 지난달 하락 폭(-1.2%)이 크게 확대된 후, 이번 달 하락 폭(-0.7%) 다소 완화
 - 강북지역은 0.5% 하락, 강남지역은 전월에 비해 0.9% 하락
- 1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하락 폭 다소 축소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1.3% 하락하여 지난해 12월의 하락 폭(-2.0%) 축소
 - 강북지역은 1.1% 하락하였고, 강남지역은 1.6% 하락

금융

-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전월대비 감소
 - 1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2조 1,849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03% 감소
- 12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328개로 전년동월대비 12.6%(192개) 감소
- 12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20개로 전월보다 29개(31.9%) 증가
- 1월 서울시 수입과 수출 지속적 감소세
 - 1월 서울의 수출은 19.9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1.5% 감소. 수출 1순위는 편직물, 다음은 무선통신기기, 고무제품, 반도체 등의 순
 - 1월 서울의 수입은 50.5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1.8%의 감소율을 기록.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의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의 순

| 생 · 산 |

12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경기침체 심화

■ 12월 산업생산 지난달에 이어 감소

- 12월 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9.6%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
-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에 기인
- 전년동월대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에서 부진하여 18.6%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0.4%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은 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의 부진으로 1.0% 감소함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경기침체 심화

- 12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87.6(NSA, 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26.0% 감소
- 업종별로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기타제품,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 및 경공업부문 모두 감소세 지속

- 서울시 12월 제조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15.3%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8.0% 감소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0% 감소
- 4/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13.4%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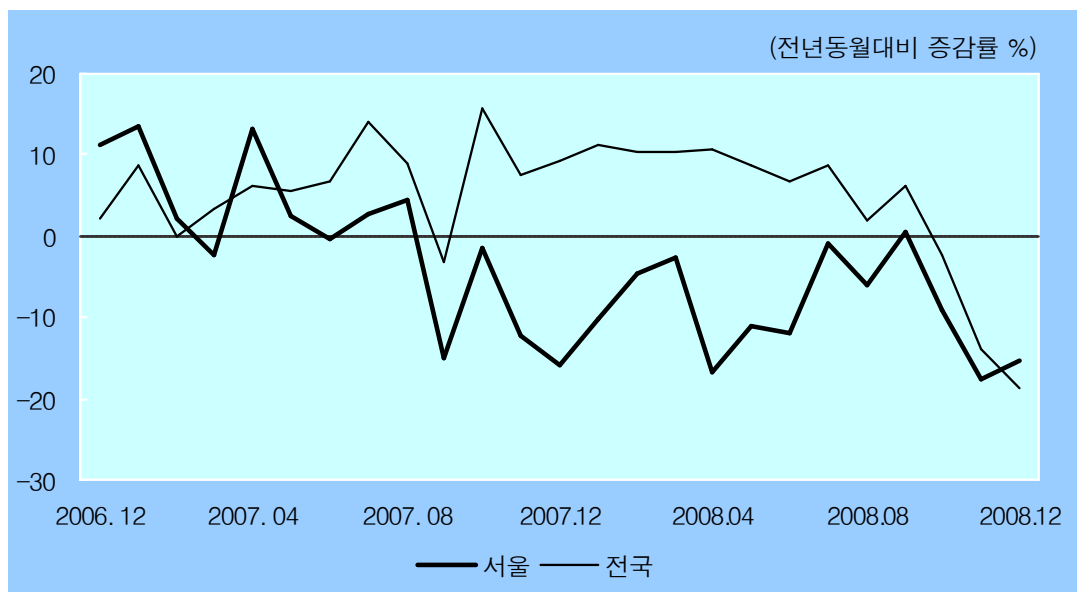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9.4 (-0.3)	1.9 (-2.2)	6.1 (-0.6)	-2.3 (-2.1)	-14.0 (-10.7)	-18.6 (-9.6)
	서울 (제조업)	-15.9 (-2.6)	-6.0 (-0.9)	0.5 (6.6)	-9.2 (3.0)	-17.5 (-15.3)	-15.3 (0.0)
	중공업	-27.7 (4.4)	-14.3 (7.0)	-6.0 (5.2)	-22.4 (-2.3)	-31.0 (-19.1)	-28.0 (8.9)
	경공업	-6.0 (-6.5)	-0.9 (-4.6)	4.2 (7.4)	-1.4 (5.6)	-9.6 (-13.5)	-7.0 (-3.8)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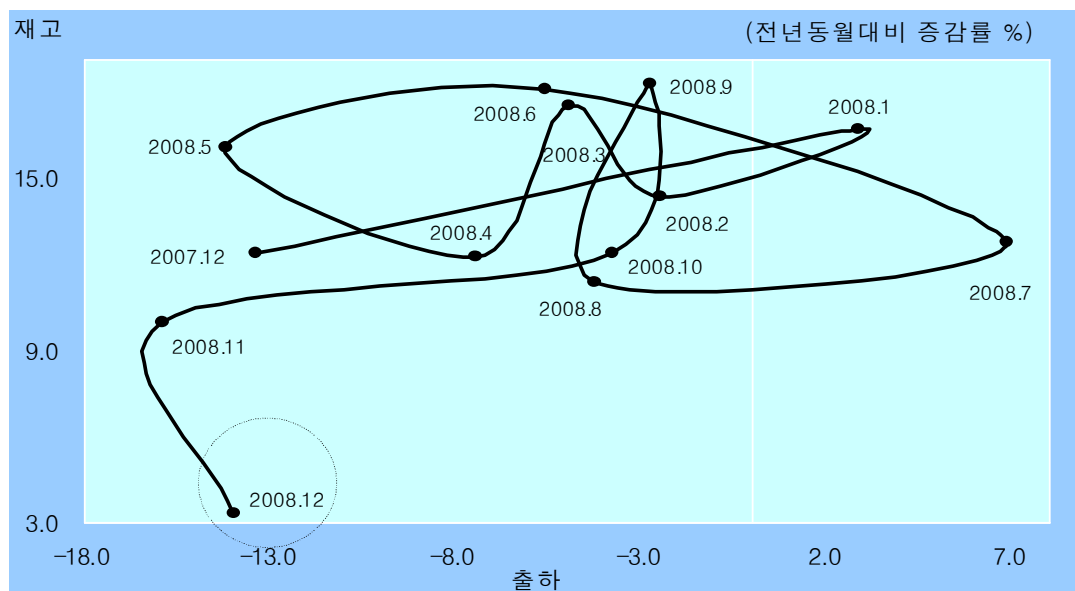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2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12월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57.9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의복 및 모피, 식료품, 1차금속 등에서 증가
 - 출하 및 재고 모두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감소

- 12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29.4%로 전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64.7%로 전월대비 8.1%p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의복 및 모피, 식료품, 1차금속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55.1%p 감소한 160.6%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8.9%p 증가한 161.9%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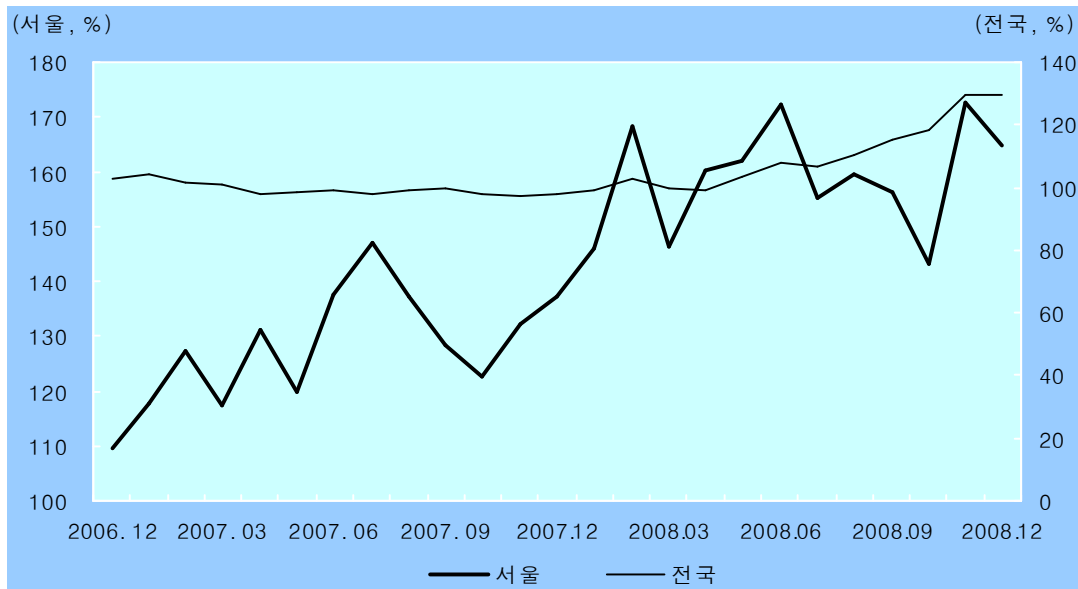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12월p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재고율	전국	98.1	110.0	115.2	118.6	129.6	129.4	-0.2
	서울	137.0	159.4	156.1	143.2	172.7	164.7	-8.1
	중공업	124.3	159.6	157.9	166.8	215.7	160.6	-55.1
	경공업	143.5	157.3	153.5	131.0	153.0	161.9	8.9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2월 서울 대형소매점 물가상승으로 인한 판매액 감소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식품 등 준내구재, 가공식품 등 비내구재 모두감소

■ 서울 대형소매점 물가상승으로 인한 판매액 감소

- 12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5,44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감소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6.6% 감소, 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 0.3%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가전,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 감소, 귀금속, 서적, 화장품 등 증가
- 판매액 감소의 원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지출 하락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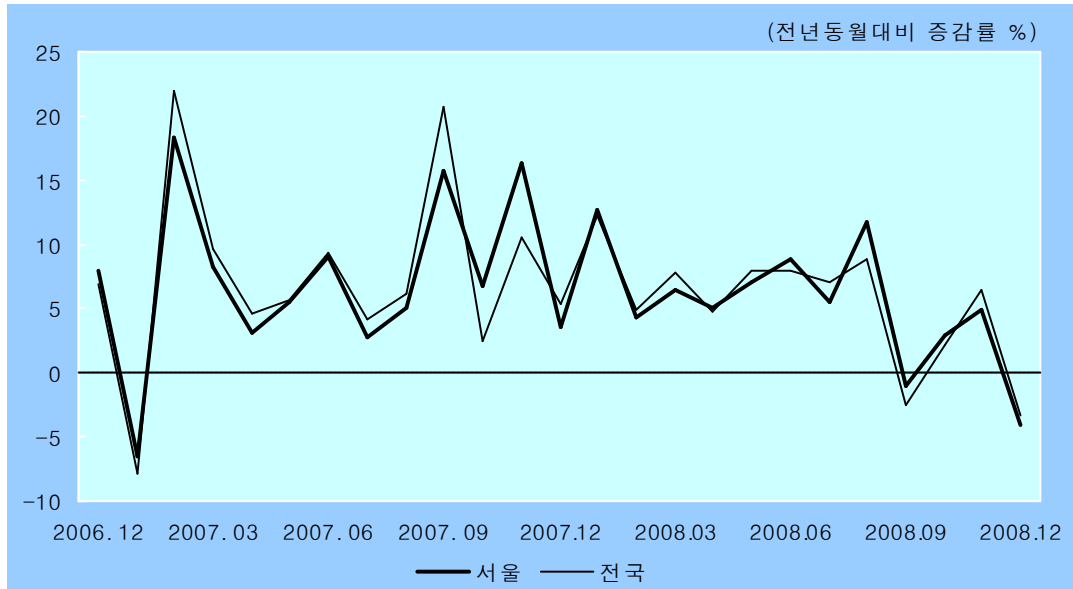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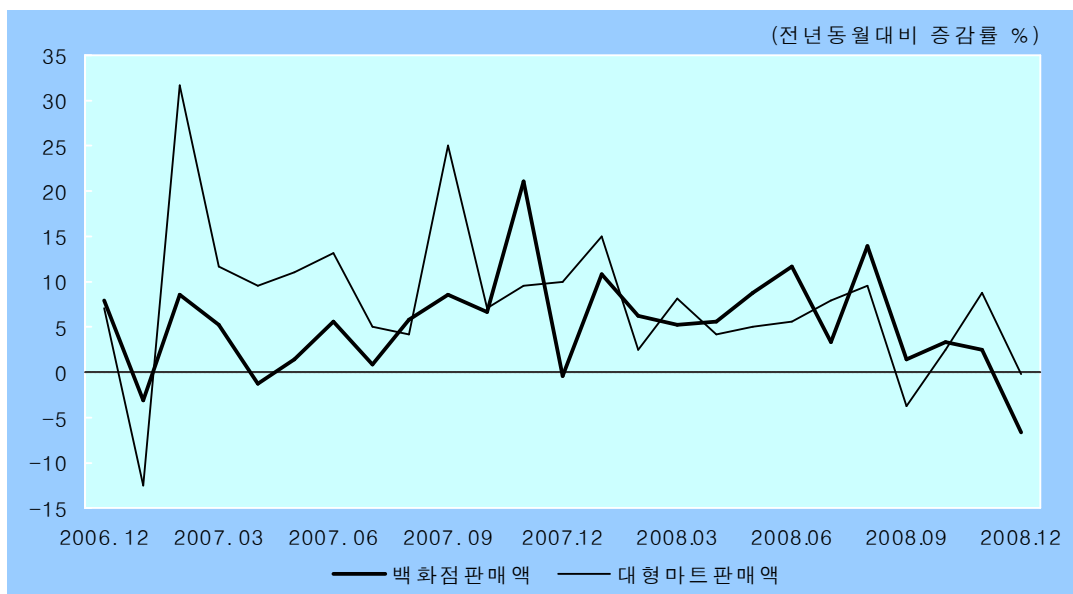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판매액	전국	4600.3 (5.3)	3877.2 (8.8)	4375.3 (-2.5)	4174.9 (2.1)	4459.7 (6.4)	4448.8 (-3.3)
	서울	1609.5 (3.5)	1254.9 (11.7)	1444.2 (-1.0)	1450.2 (3.0)	1558.3 (4.9)	1544.4 (-4.0)
	백화점	961.4 (-0.5)	639.4 (14.0)	784.2 (1.4)	861.1 (3.3)	930.6 (2.4)	898.2 (-6.6)
	대형마트 (할인점)	648.0 (10.0)	615.4 (9.5)	660.0 (-3.7)	589.0 (2.4)	627.7 (8.7)	646.1 (-0.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제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전월에 비하여 LPG, 등유 등의 하락으로 교통부문이 1.07%, 주거 및 수도·광열부문이 0.3% 각각 하락, 기타잡비 부문도 0.2% 하락, 통신, 교육 부문은 전월대비 보합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7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이 전도시 평균(0.1%)보다 높게 상승, 반면 대전, 울산, 강원, 경북은 하락, 대구, 충북, 제주는 보합, 부산 등 나머지 9개 시도는 모두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의복·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부문은 보합이며, 교통, 교양·오락, 교육, 기타 잡비 부문은 하락 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보건의료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전국:0.2%), 전년동월대비 2.9%(전국:2.8%)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7.3%, 전년동월대비 0.3%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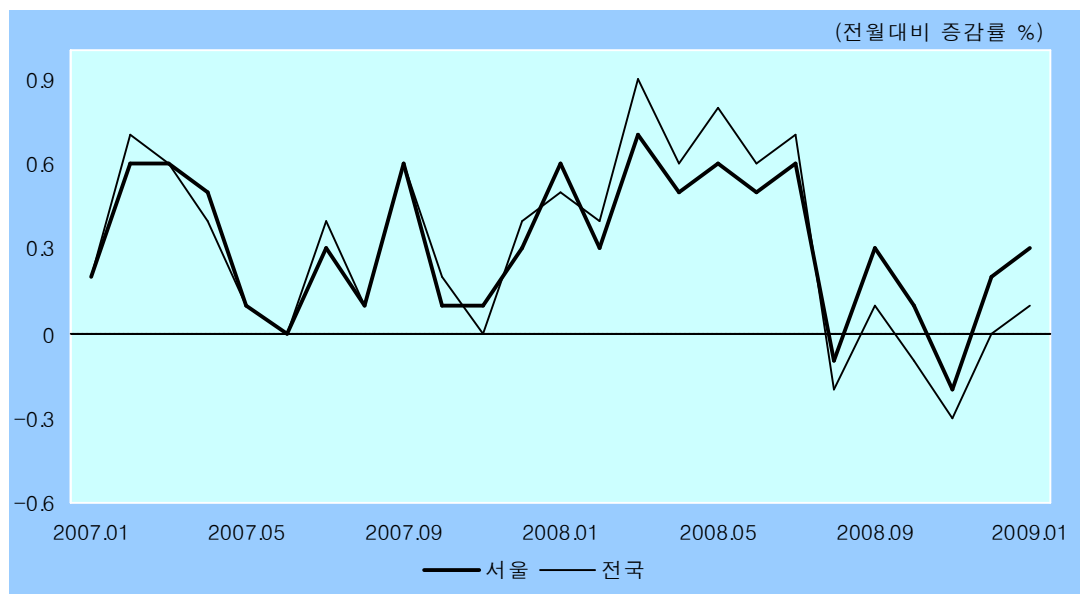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비	전국		0.5 (3.9)	-0.2 (5.6)	0.1 (5.1)	-0.1 (4.8)	-0.3 (4.5)	0.0 (4.1)	0.1 (3.7)
	서울		0.6 (3.8)	-0.1 (4.8)	0.3 (4.5)	0.1 (4.4)	-0.2 (4.2)	0.2 (4.1)	0.3 (3.7)
	상품 성질별	상품	0.8 (4.8)	-0.5 (7.4)	0.4 (6.4)	-0.1 (6.0)	-1.1 (4.9)	0.3 (4.6)	0.5 (4.4)
		서비스	0.4 (3.2)	0.2 (3.6)	0.1 (3.4)	0.2 (3.6)	0.4 (3.8)	0.1 (3.7)	0.1 (3.4)
	생활물가		0.4 (4.9)	-0.3 (5.5)	0.1 (4.6)	-0.3 (4.1)	-0.4 (3.6)	-0.4 (2.9)	0.4 (2.9)
	신선식품		-1.5 (4.3)	4.7 (-3.3)	-1.7 (-12.7)	-2.0 (-15.6)	-2.0 (-11.7)	3.4 (-7.9)	7.3 (0.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지속

- 전국 1월 15세 이상 인구는 39,8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3,7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0.1%)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968천명으로 47천명(0.3%)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741천명으로 76천명(-0.8%)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1월 15세 이상 인구는 8,2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0.7%)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0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4%)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7 (-1.1)	0.7 (-1.2)	0.5 (0.3)	0.4 (0.5)	0.4 (-0.1)	0.2 (-2.2)	-0.1 (-1.3)
	서울	-0.1 (0.0)	-0.1 (-0.5)	-1.3 (-0.7)	-1.7 (-0.2)	-1.8 (-0.1)	-1.4 (-0.8)	-1.4 (0.1)
	남자	0.0 (0.0)	-0.4 (-0.5)	-0.9 (-0.9)	-0.9 (-0.2)	-1.0 (0.2)	-1.1 (-1.1)	-0.8 (0.3)
	여자	-0.3 (0.0)	0.3 (-0.6)	-1.7 (-0.4)	-2.7 (-0.2)	-2.8 (-0.3)	-2.0 (-0.5)	-2.3 (-0.3)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0.3	61.5	61.6	61.9	61.8	60.4	59.5
	서울	62.2	62.2	61.7	61.6	61.5	60.9	60.9
	남자	73.6	74.1	73.4	73.2	73.2	72.4	72.5
	여자	51.4	50.9	50.7	50.6	50.4	50.1	49.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1월 서울의 취업자 중 청년 취업자 감소세 지속

■ 전국의 1월 취업자 수 30대 이하에서 감소

- 1월 취업자는 22,8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3천명(-0.4%)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4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0.1%) 감소하였고, 여자는 9,460천명으로 84천명(-0.9%)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서울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감소세 지속

- 1월 취업자는 4,8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2천명(-1.5%)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72천명, 여자는 2,0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9천명(-1.4%), 여자는 33천명(-1.6%)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4천명(3.7%)이 증가하였고, 제조업 85천명(-13.5%), 건설업 18천명(-4.5%), 농림어업 0.1천명(-3.6%), 도소매·음식숙박업 26천명(-1.9%), 전가·운수·통신·금융업 5천명(-0.6%)이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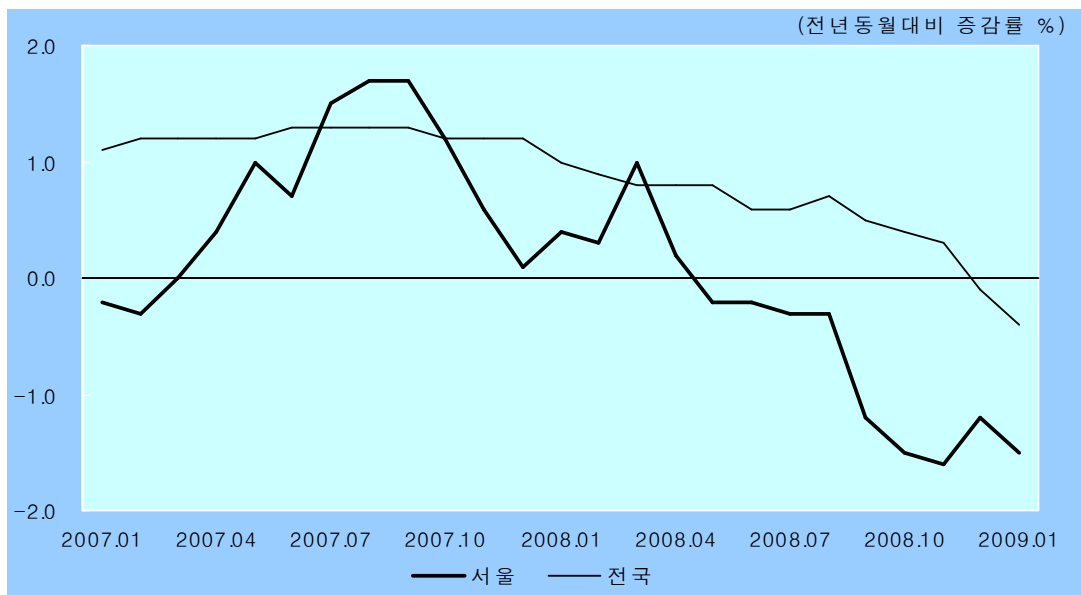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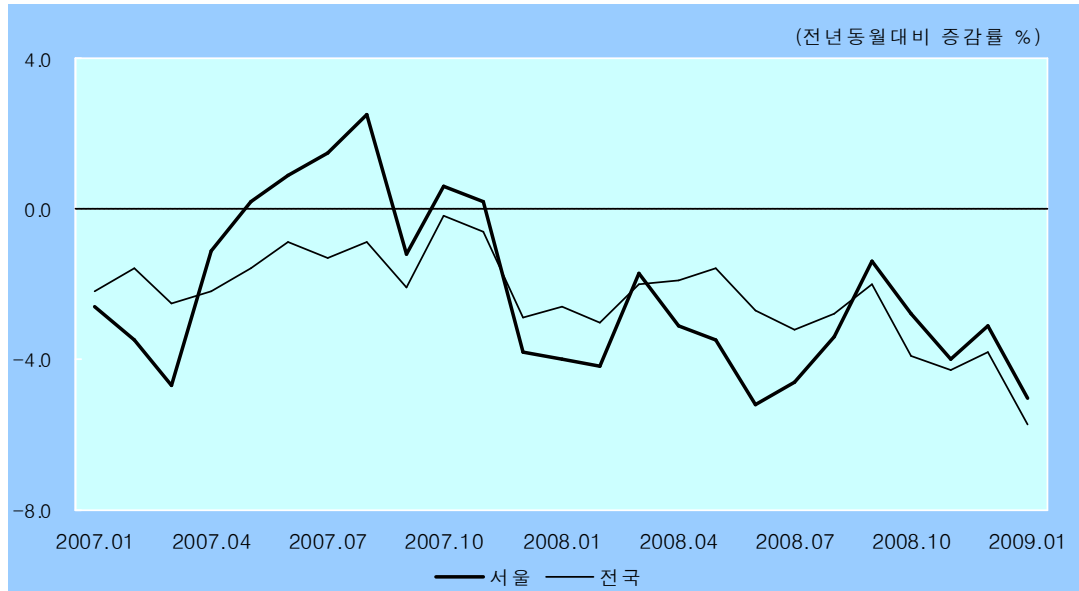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1월	8월	9월.0	10월	11월	12월	1월
취업자	전국	1.0 (-1.3)	0.7 (-1.2)	0.5 (0.5)	0.4 (0.5)	0.3 (-0.1)	-0.1 (-2.4)	-0.4 (-1.7)
	서울	0.4 (-0.1)	-0.3 (-0.9)	-1.2 (-0.3)	-1.5 (-0.2)	-1.6 (-0.2)	-1.2 (-0.9)	-1.5 (-0.3)
	남자	1.1 (-0.2)	-0.1 (-0.7)	-0.5 (-0.7)	-0.8 (-0.3)	-1.4 (-0.3)	-1.5 (-1.3)	-1.4 (-0.1)
	여자	-0.5 (0.1)	-0.7 (-1.1)	-2.1 (0.4)	-2.3 (-0.1)	-1.9 (-0.1)	-0.9 (-0.4)	-1.6 (-0.6)
청년층 취업자	전국	-2.6 (2.5)	-2.8 (-2.6)	-2.0 (-1.7)	-3.9 (-0.7)	-4.3 (0.1)	-3.8 (-1.0)	-5.7 (0.5)
	서울	-4.0 (3.5)	-3.4 (-1.1)	-1.4 (-0.9)	-2.8 (-2.0)	-4.0 (-0.2)	-3.1 (-2.2)	-5.0 (1.6)
고령층 취업자	전국	3.0 (-4.3)	1.5 (-0.8)	2.1 (2.1)	2.1 (0.4)	3.3 (-0.9)	1.3 (-8.4)	1.3 (-4.3)
	서울	1.3 (-0.1)	-0.4 (-0.1)	-3.4 (0.7)	-2.0 (-0.7)	-1.6 (-1.2)	-1.0 (-2.2)	0.1 (0.1)
	55~59세	7.2 (-0.5)	5.2 (1.3)	3.2 (-0.3)	0.4 (-1.2)	2.3 (0.5)	1.1 (-2.0)	4.0 (2.4)
	60세 이상	-3.1 (-1.1)	-4.7 (-1.4)	-8.0 (1.7)	-3.8 (-0.3)	-4.6 (-2.5)	-2.5 (-2.5)	-3.1 (-1.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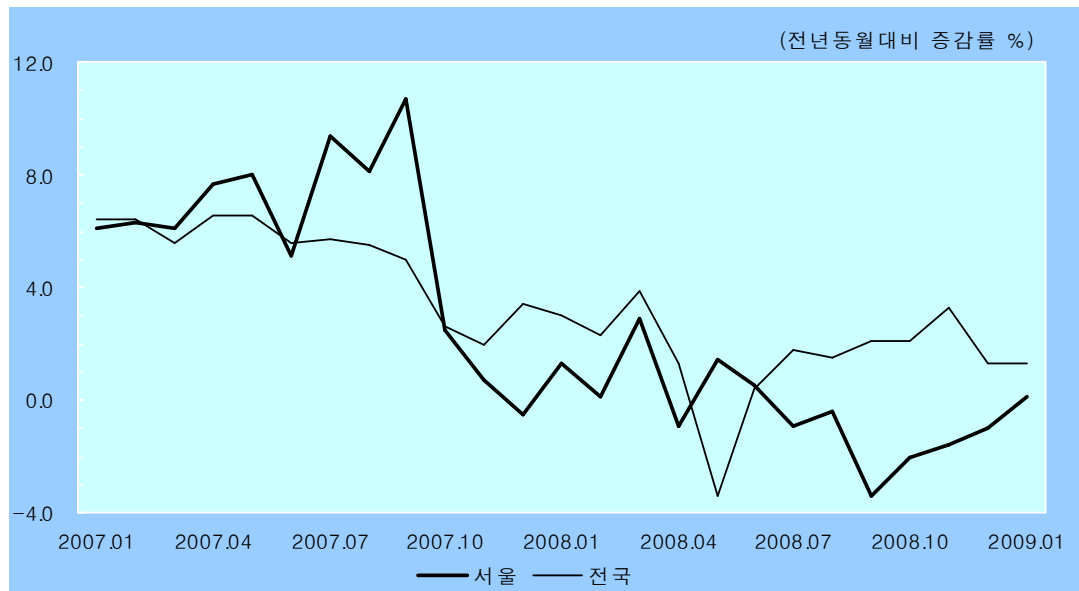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증가, 기능기계조작 및 서비스업 종사자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32.1%), 사무종사자 52천명(6.7%), 서비스·판매종사자 8천명(0.6%)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02천명(-7.3%),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1천명(-2.2%)이 각각 감소

■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195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64천명(-5.1%), 임금근로자는 8천명(-0.2%)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52천명(-4.8%), 무급가족종사자는 12천명(-6.7%)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1천명(3.2%), 일용근로자는 6천명(1.2%)이 각각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75천명(-5.9%)이 감소

■ 일시휴직자 전년동월대비 16.4%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5.7%),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1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1.4%)이 각각 감소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천명(-13.7%), 18~35시간 취업자는 5천명(-1.5%)이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4천명(2.7%)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는 133천명(-8.6%)이 감소
- 일시휴직자는 1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16.4%)이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산업별	제조업	-7.3 (0.6)	-10.9 (-6.0)	-6.8 (8.4)	-13.0 (-4.3)	-14.4 (-10.6)	-15.3 (-0.7)	-13.5 (2.9)
	SOC 및 기타서비스업	1.7 (-0.2)	1.3 (-0.1)	0.0 (-1.4)	0.4 (0.4)	0.2 (1.2)	0.8 (-0.9)	0.3 (-0.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2 (-1.3)	0.2 (-0.4)	0.6 (0.3)	1.0 (1.5)	3.2 (1.6)	4.2 (-0.6)	3.7 (-1.8)
	도소매·음식숙박	-1.4 (-0.7)	3.5 (0.8)	0.9 (-3.5)	2.0 (-0.4)	-1.1 (-0.4)	-1.5 (1.5)	-1.9 (-1.1)
	전기·운수·통신·금융	5.9 (3.0)	0.4 (-0.3)	-2.6 (-3.6)	-1.4 (1.3)	-3.1 (2.8)	-1.0 (-2.0)	-0.6 (3.4)
	건설업	2.9 (0.7)	0.3 (-1.3)	-0.6 (1.9)	-4.0 (-3.5)	-2.6 (2.0)	-2.4 (-7.8)	-4.5 (-1.5)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1.0 (5.6)	3.6 (-1.1)	3.8 (0.7)	2.2 (-2.2)	4.6 (1.4)	3.6 (-0.1)	-2.2 (-0.3)
	기능·기계작·조립·단조종사	-3.3 (-1.5)	-5.0 (-0.3)	-5.6 (0.4)	-6.4 (0.2)	-7.3 (-3.7)	-7.1 (-3.2)	-7.3 (-1.7)
	서비스·판매종사자	-1.7 (-1.4)	2.1 (0.6)	-0.5 (-3.5)	0.1 (1.0)	-2.8 (2.0)	-1.2 (-0.7)	0.6 (0.4)
	사무종사자	-5.8 (-4.7)	-2.2 (-3.7)	-1.0 (2.4)	-0.9 (0.7)	0.1 (-0.5)	0.9 (1.4)	6.7 (0.8)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9 (0.6)	0.0 (-2.2)	0.0 (1.1)	-0.6 (-0.3)	0.0 (-0.1)	0.3 (-0.7)	-0.2 (0.1)
	비임금근로자	-0.8 (-1.9)	-1.1 (3.0)	-4.4 (-4.1)	-3.8 (0.2)	-6.1 (-0.5)	-5.5 (-1.5)	-5.1 (-1.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1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보합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실업자는 8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9.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명(13.1%) 증가하였고, 여자는 2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2.9%) 증가
-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자는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보합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15~19세와 30~50대에서 증가한 반면, 2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4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보합, 그 외 연령층에서는 상승

■ 서울의 실업률 전국대비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월 실업자는 2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천명(0.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12.7%)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63천명으로 17천명(-21.4%)이 감소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여자는 2.9%로 0.7%p 하락

■ 서울의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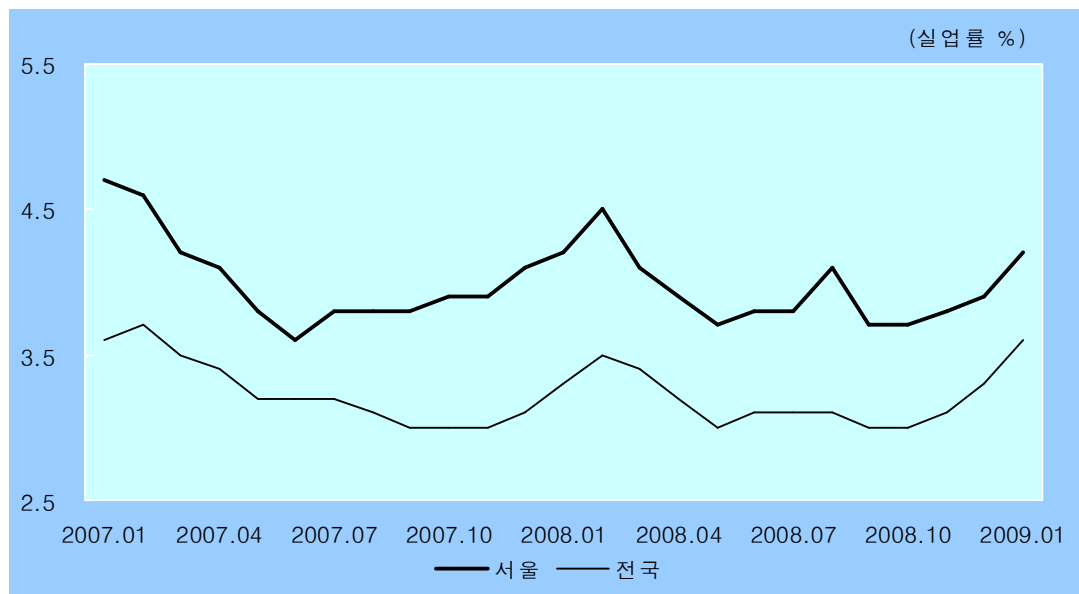
- 2008년 1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7%로 전년동월대비 1.5%p, 여자는 48.5%로 1.1%p 각각 하락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실업률	전국		3.3	3.1	3.0	3.0	3.1	3.3	3.6
	서울		4.2	4.1	3.7	3.7	3.8	3.9	4.2
	성별	남자	4.6	4.3	4.1	4.2	4.6	4.8	5.2
		여자	3.6	3.8	3.1	3.0	2.8	2.6	2.9
고용률	전국		58.3	59.6	59.8	60.0	59.9	58.4	57.3
	서울		59.6	59.6	59.5	59.3	59.1	58.6	58.3
	성별	남자	70.3	70.9	70.3	70.1	69.9	68.9	68.7
		여자	49.6	49.0	49.2	49.1	49.0	48.8	48.5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전년동월 대비)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21,721,694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5%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3,736,648백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6.3%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7.2%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99.9%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125.4% 증가
- 공공부문은 전년대비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발주 및 치산치수 부문 발주 증가로 대폭 증가, 민간부문은 주택 재개발공사 부문 및 사무실 공사의 발주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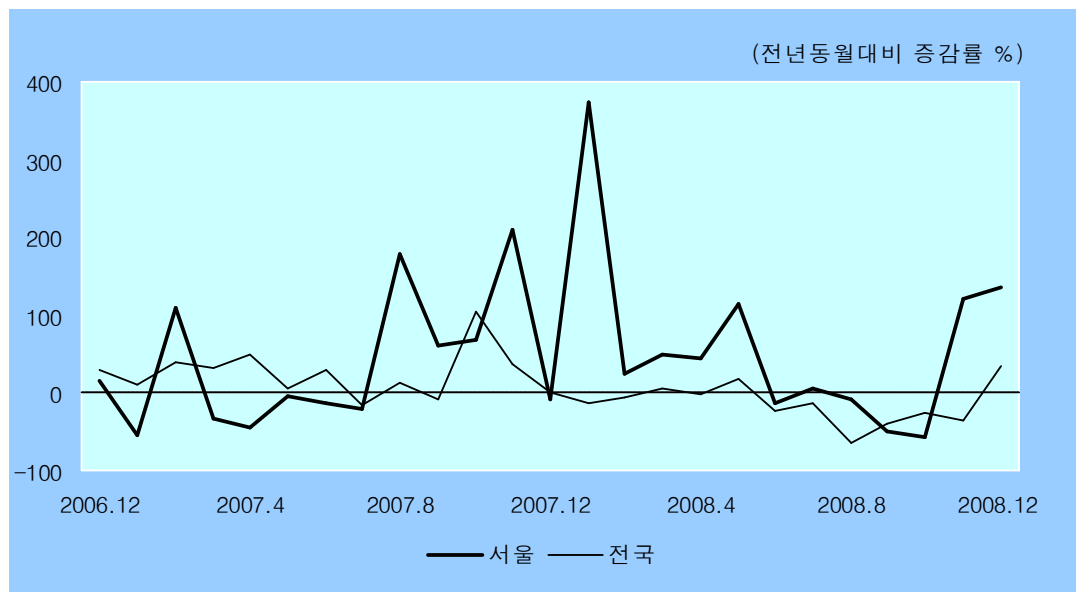
- 2008년 12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2,827.7천㎡로 전년동월 대비 11.1% 감소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5.7% 감소, 연립주택은 35.9% 감소, 아파트는 1,636.8%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358.5% 증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상업 부문이 33.4% 감소, 공업부문이 258.2% 증가, 문교 및 사회 부문이 19.9% 증가, 기타 부문이 38.1% 감소.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3.3%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국		16,272	6,084	5,436	8,131	7,954	21,721	33.5	173.1
서울		1,581	845	1,085	926	3,014	3,736	136.3	24.0
발주 자별	공공	226	98	75	573	596	678	199.9	13.8
	민간	1,349	747	983	229	2,307	3,042	125.4	31.9
공종 별	건축	1,479	815	1,013	874	2,855	3,313	124.0	16.0
	토목	96	29	61	50	158	414	328.4	162.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3,182.2	3,031.9	1,441.2	1,912.4	1,978.9	2,827.7	-11.1	42.9
주거용	소계	36.9	97.3	68.5	38.4	29.7	169.2	358.5	469.7
	단독	11.5	10.8	10.0	13.3	8.8	7.4	-35.7	-15.9
	연립	16.7	12.2	1.0	7.2	2.8	10.7	-35.9	282.1
	아파트	8.7	74.3	57.5	17.9	18.1	151.1	1,636.8	734.8
비주거용	소계	3,065.4	2,934.6	1,372.7	1,874.0	1,949.2	2,658.5	-13.3	36.4
	상업	2,223.9	2,242.7	1,048.0	1,367.4	1,175.1	1,482.0	-33.4	26.1
	공업	91.1	174.4	27.5	34.7	207.0	326.3	258.2	57.6
	문교/사회	665.1	465.7	289.5	462.8	563.2	797.5	19.9	41.6
	기타	85.2	51.8	7.7	9.1	3.9	52.7	-38.1	1,251.3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다소 완화

■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다소 축소

-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6%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서울강남 및 경기 남부지역의 급락세가 진정되어 전월(-0.7%)에 비해 하락폭이 다소 축소
-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서울(-0.7%), 경기(-1.0%) 등 하락을 주도하던 지역이 하락폭은 다소 완화
-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7%, 단독주택이 -0.2%, 연립주택이 -0.5%로 나타나 아파트가 하락을 주도하였으나, 주택유형 전반에서 하락 폭은 축소

■ 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하락 폭 다소 완화

- 강북지역은 마포구(-1.0%), 노원구(-0.9%)를 중심으로 하락하였고, 강남지역에서는 강동구(0.0%)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7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보합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1.7%), 송파구(-1.5%), 강남구(-1.1%)의 하락세로 둔화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전 국		97.3	100.0	99.4	2.3	-0.6
서울		95.9	100.0	99.3	3.6	-0.7
아파트		97.4	100.0	99.1	1.8	-0.9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3.0	100.0	99.5	7.0	-0.5
	강남	99.0	100.0	99.1	0.2	-0.9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하락지역은 마포구, 노원구, 성북구

-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구(-1.0%), 노원구(-0.9%)가 크게 하락하였고, 성북구(-0.7%)와 동대문구(-0.5%) 역시 큰 폭으로 하락
- 종로구(0.0%)가 보합세를 나타낸 외 강북의 모든 지역 매매가격이 하락

■ 강남 주요 하락지역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 강남 지역에서도 매매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1.7%), 송파구(-1.5%), 강남구(-1.1%) 등을 중심으로 하락
- 구로구(-0.9%), 양천구(-0.8%), 강서구(-0.8%) 등 지역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유일하게 강동구(0.0%)가 보합세를 나타냄

■ 1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월 30일 기준)은 1,741만원으로 전월(1,748만원)보다 소폭 하락하여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139만원), 용산구(2,555만원), 서초구(2,509만원), 송파구(2,275만원), 양천구(1,829만원), 광진구(1,786만원)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미달하는 구는 금천구(1,017만원), 은평구(1,077만원), 중랑구(1,125만원), 강북구(1,128만원) 등 순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하락 폭 다소 축소

■ 1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하락 폭 다소 완화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0.9%)은 경기침체에 따른 이동수요 감소로 23년 장기평균(0.4%)를 크게 하회하는 변동률을 보였으나 전월(-1.1%)에 하락 폭은 다소 축소
- 수도권(-1.4%)의 하락 폭이 축소되었으나 광역시(-0.5%)는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기타 지방(-0.4%)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이 각각 -1.2%, -0.3%, -0.8%로 아파트가 하락을 주도하였으나 주택유형 전반에 걸쳐 하락폭이 축소
- 전국의 주택규모별 전세가격은 대형, 소형이 각각 -1.2%, -0.6%로 하락폭이 축소된 반면 중형은 -1.3%로 전월대비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며 대형의 하락폭을 상회

■ 1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폭 다소 축소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1.3% 하락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락폭 축소
- 강북지역(-1.1%)에서는 서대문구(-1.5%)가 가재울 뉴타운 1구역 입주에 따른 물량증가로 하락하였고, 마포구(-1.4%)가 신공덕동 및 성산동 입주물량 증가로 하락
- 강남지역(-1.6%)에서는 서초구(-2.9%), 강남구(-2.3%), 송파구(-2.2%)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하락세는 크게 둔화

■ 주요 하락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 강남지역에서는 모든 지역이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2.9%), 강남구(-2.3%), 송파구(-2.2%)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동작구(-1.6%), 관악구(-1.5%), 강서구(-1.4%)도 크게 하락
- 강북지역에서도 모든 지역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서대문구(-1.5%), 마포구(-1.4%), 도봉구(-1.3%), 노원구(-1.2%)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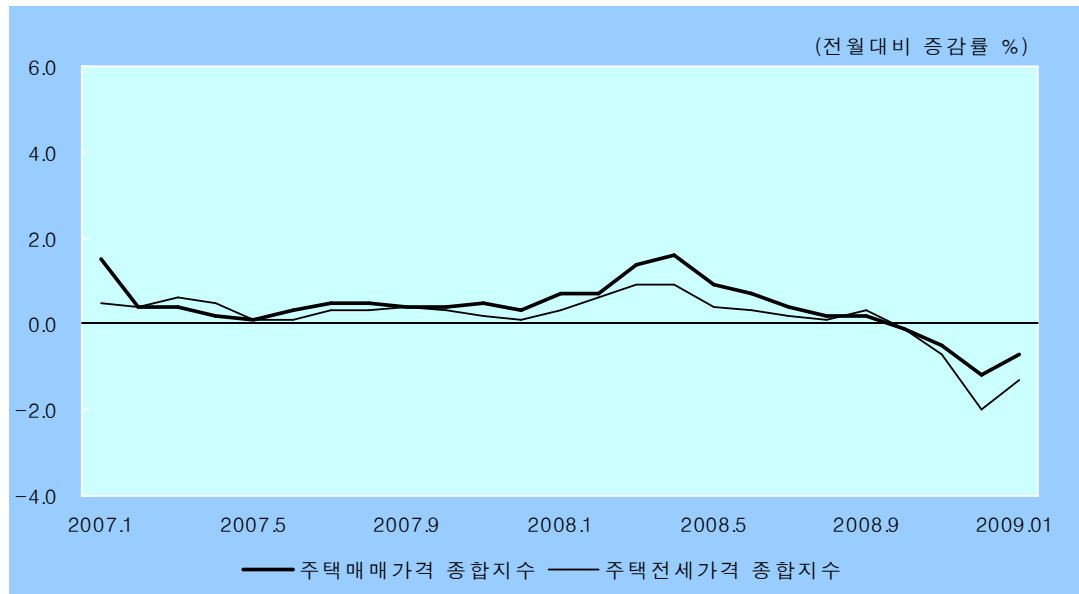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전국		98.5	100.0	99.1	0.6	-0.9
서울		99.2	100.0	98.7	-0.5	-1.3
아파트		102.0	100.0	98.3	-3.6	-1.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7.2	100.0	98.9	1.8	-1.1
	강남	101.3	100.0	98.4	-2.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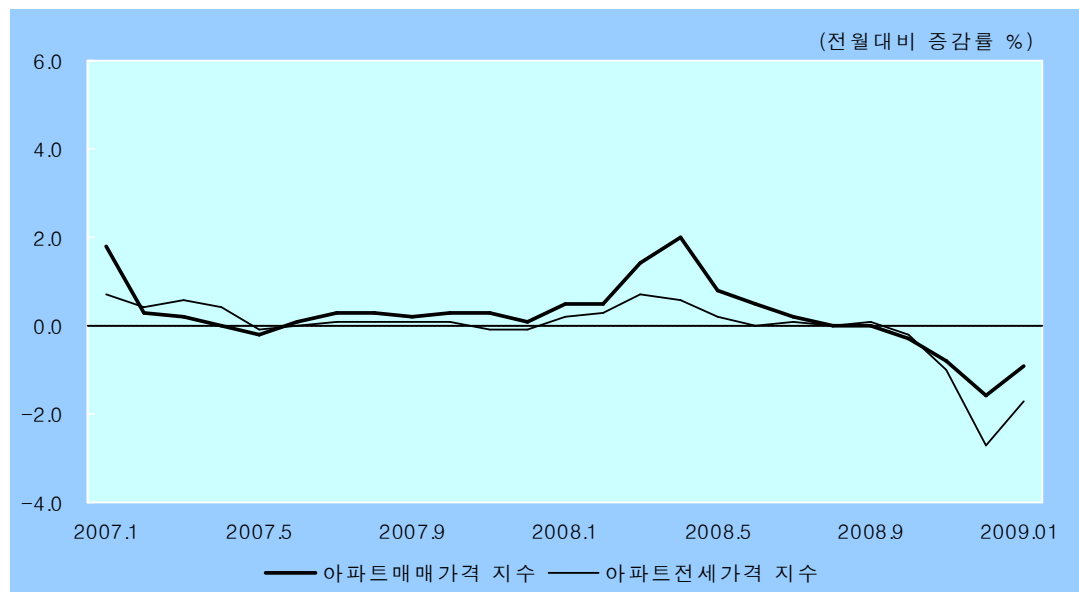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8년 5월의 39.8%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작년 12월에는 38.7%를 기록하였고 2009년 1월에는 38.2%로 하락 폭 확대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1월 전국 평균 52.3%보다 14.1%p 낮은 수준이며, 전국대비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0%, 강남 35.9%로 1월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1%p이며,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장단기시장금리 하락세 지속

금리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하락세 지속
 - 1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크레딧물을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기준금리(1.9일 -50p) 및 유동성 공급 확대(1.13일 91일물 1조원 등)
- CD(91일) 유통수익률 대폭 하락
 - 1월 중 CD(91일) 유통수익률의 대폭 하락으로 은행여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전월에 이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
- 1월 기준 장·단기 시장금리 하락세 지속
 - 1월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및 유동성공급 확대 조치 지속으로 크레딧물 금리 및 은행 여신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회사채 및 CP의 발행·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금융 시장여건이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
 - 1월 중 회사채 순발행규모는 월간 사상 최대 규모

주가

- 1월 KOSPI 지수 등락 반복
 - KOSPI 지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의 하락요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부양 기대 등의 상승요인이 교차하면서 대체로 1,100 ~ 1,200 사이에서 등락
(08.10.24일 939p → 12월말 1,124p → 09.1.7일 1,228p → 09.1.23일 1,093p)

■ 1월중 외국인 투자자 전월에 이어 소폭의 순매수 지속

- 외국인 투자자가 전월 순매수로 전환된 후 소폭의 순매수 지속

· 외 국 인: 10월 -4.9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0.8조원 → 09.1월 +0.7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금 리	국고채(3년)	5.44	5.74	4.47	4.87	3.97	3.44	-0.53
	CD(91일물)	5.81	5.83	5.98	5.45	4.68	3.22	-1.46
	콜금리(1일)	4.99	5.22	4.88	4.00	3.27	2.43	-0.84
	장단기 금리차 ¹⁾	-0.37	-0.09	-1.51	-0.58	-0.71	0.22	0.93
주 가	KOSPI	1,732.30	1,446.10	1,201.70	1,073.95	1,114.90	1,156.37	41.47
	KOSDAQ	667.1	444.16	348.31	310.48	324.98	355.10	30.12
환율 (₩/US\$)		942.4	1136.64	1326.85	1400.81	1368.80	1354.68	-14.12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감소

- 은행의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설 상여금 지급) 등에 의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감소 (-3.2조원)에 따라 1.7조원 감소

(10월 +1.4조원 → 11월 +1.8조원 → 12월 +1.6조원 → 09.1월 -1.7조원)

-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주택거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규 제 완화 등에 힘입어 전월에 이어 2조원대의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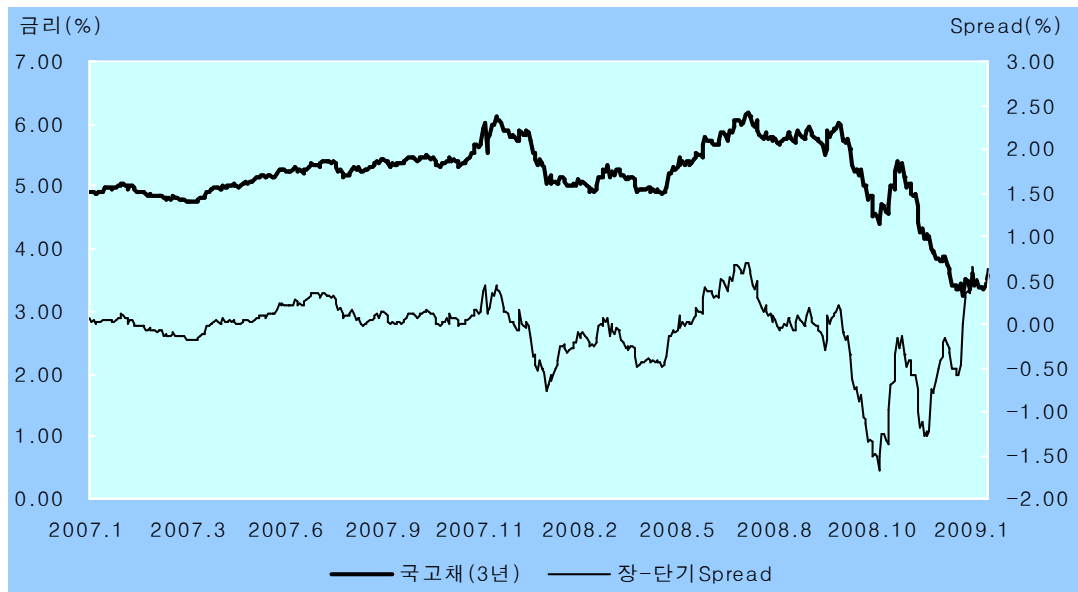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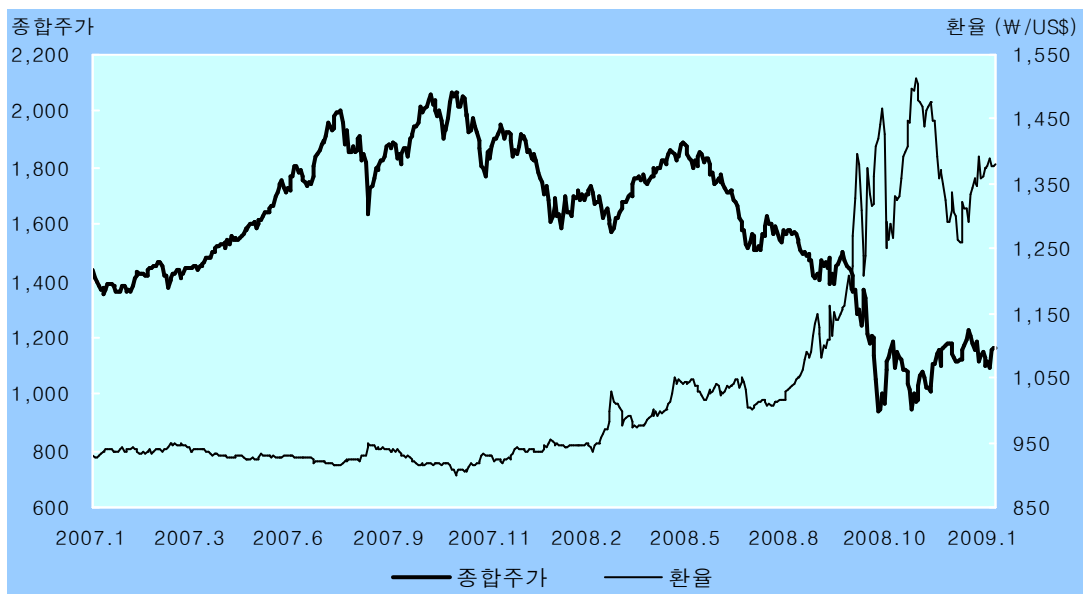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연중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2월	1월	증감률
가계대출 ¹⁾	17.8	2.1	1.4	1.8	1.6	-1.7	388.4	386.8	-0.41
주택담보대출 ²⁾	4.6	1.7	1.0	1.8	2.3	1.8	239.7	241.5	0.7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	0.5	0.4	0.1	-0.8	-3.2	146.8	143.6	-2.18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12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01조 6,194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 8,548억원(0.4%) 감소
- 12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92조 1,849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1,274억원(1.03%) 감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전월대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액	증감률
전국	예금은행	803,724.10	900,567.8	913,084.4	920,259.6	917,110.1	-3,149.5	-0.34
	비은행기관	255,148.60	280,423.2	285,738.4	286,214.6	284,509.3	-1,705.3	-0.60
	합계	1,058,872.70	1,180,991.0	1,198,822.8	1,206,474.2	1,201,619.4	-4,854.8	-0.40
서울	예금은행	343,162.90	396,236.5	405,074.2	408,252.2	406,595.4	-1,656.8	-0.41
	비은행기관	79,473.80	85,971.0	89,495.9	89,060.1	85,589.5	-3,470.6	-3.90
	합계	422,636.70	482,207.5	494,570.1	497,312.3	492,184.9	-5,127.4	-1.03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크게 상승

- 서울의 12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11월보다 0.4%p 증가한 61.9%를 기록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9월대비 10월에 크게 하락하였다가 12월에는 다시 큰 폭 상승하여 88.2%를 나타냄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전국		87.5	88.5	87.6	87.6	88.2	0.6
서울		59.1	61.2	61.4	61.5	61.9	0.4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12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12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797개로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10.6%(452개) 감소하였으나, 명절 효과로 인한 '07년 9월의 3,202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전월(3,331개) 보다는 14.0%(466개) 증가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증가

- 1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328개로 전년동월대비 12.6%(192개)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15.9%(182개) 증가

■ 서울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 수 증가

- 미국발 금융악재로 글로벌 신용위기 확산 등의 대외악재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11월에 대폭 감소한 이후, 12월에는 모든 업종 증가세
- 전월대비 제조업은 46.9%(61개)의 증가율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11.4%(110개), 건설 및 설비업은 15.7%(8개)의 증가율을 보임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249	3,671	3,975	3,331	3,797	466	14.0	-452	-10.6	
서울	1,520	1,291	1,425	1,146	1,328	182	15.9	-192	-12.6	
	서비스업	1,342	1,069	1,184	965	1,075	110	11.4	-267	-19.9
	제조업	68	122	160	130	191	61	46.9	123	180.9
	건설 및 설비업	110	98	81	51	59	8	15.7	-51	-46.4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12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4%로 전월대비 0.01%p 상승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345개로, 전월(297개)보다 48개 증가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0.02%)대비 0.01%p 상승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120개로 전월(91개)보다 29개(3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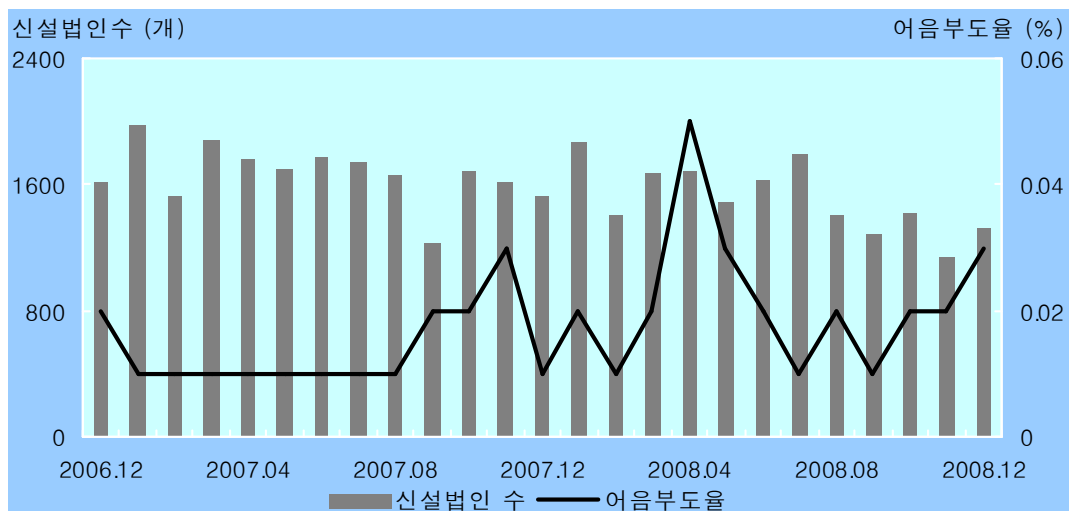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3	0.03	0.04	0.01	33.3	0	33.3	
	부도업체 수	178	203	321	297	345	48	16.2	167	93.8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2	0.02	0.03	0.01	50.0	0	200.0	
	부도업체 수	62	80	111	91	120	29	31.9	58	93.5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2009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보증 건수 및 금액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월중 2,336건, 44,774백만원 공급하여 전년 동월 대비 건수 기준 291.3%, 금액 기준 149.8%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건수 36.5%, 금액 29.7% 감소
- 2008년말 자금수요에 따른 조기 처리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신용보증 공급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2009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 공급 규모 증가 예상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597	4,158	3,971	3,888	3,679	2,336	-1,343	-36.5	1,739	291.3
금액	17,926	69,917	71,059	63,816	63,648	44,774	-18,874	-29.7	26,848	149.8
건당평균금액	30.0	16.8	17.9	16.4	17.3	19.2	1.9	11.0	-10.8	-36.0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소매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증가

- 도소매업의 경우, 3개월 연속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전월 대비 건수 기준 산정시 2.6% 증가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 0.7% 상승률을 보인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체제 확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금액별 지원 현황 산정시,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0.2%내의 변동 내역을 보임으로서 뚜렷한 변화는 없었으며, 기타 업종의 경우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중 감소세 두드러짐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88	847	440	473	388	2,336
비율	8.1	36.3	18.8	20.2	16.6	100
금액	4,968	17,079	8,128	7,963	6,636	44,774
비율	11.1	38.1	18.2	17.8	14.8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 신용보증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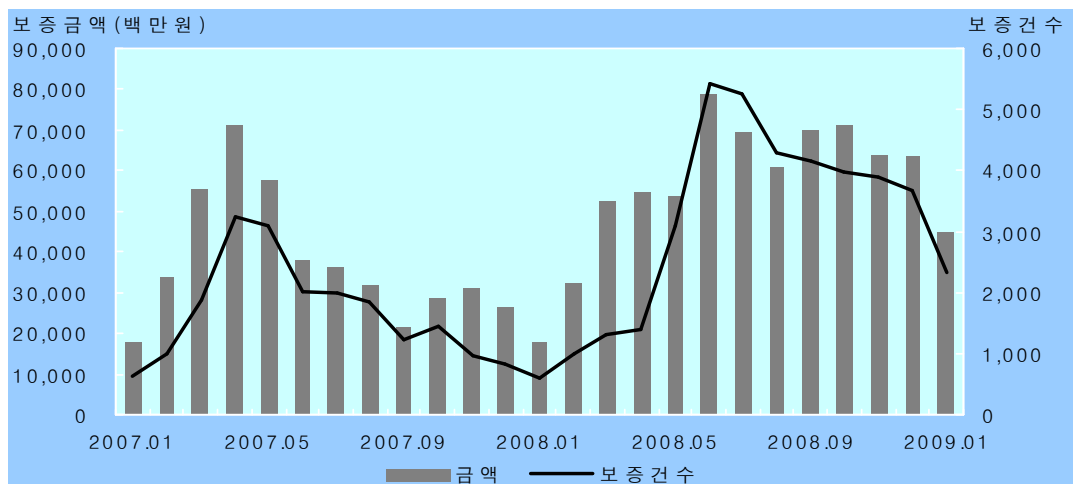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자료분석 결과, 건수 기준 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서울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및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향후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현행보다 확대 예정인 바, 이 같은 추세는 금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11	2008.12	2009.0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3,730	3,527	2,243	-1,284
	비율	95.9	95.9	96.0	0.1
	금액	54,414	57,149	39,255	-17,894
	비율	85.3	89.8	87.7	-2.1
소기업	건수	125	107	72	-35
	비율	3.2	2.9	3.1	0.2
	금액	6,780	4,713	3,624	-1,089
	비율	10.6	7.4	8.1	0.7
중기업	건수	33	45	21	-24
	비율	0.8	1.2	0.9	-0.3
	금액	2,622	1,787	1,895	108
	비율	4.1	2.8	4.2	1.4
합계	건수	3,888	3,679	2,336	-1,34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63,816	63,648	44,774	-18,87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전국 전년동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

- 1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3.8% 감소한 213.7억달러, 수입은 31.9% 감소한 247.2억달러를 기록
- 2008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수출, 수입액 모두 300억불 아래로 내려가며 전체적인 무역량(수출액+수입액)의 감소를 나타냄

■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세

- 세계경기침체 및 소비수요 급감으로 수출, 수입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세
- 수출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및 소비수요 감소로 선박(19.6% 증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세를 기록
- 수입의 경우, 원유 등 원자재의 가격하락과 경제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의 원인으로 크게 감소

■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월 서울의 수출은 19.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5% 감소하였고, 수입은 50.5억달러로 31.8% 감소
- 서울의 수출과 수입은 세계경기침체 및 소비수요 급감으로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

■ 1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133,658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무선통신기기, 고무제품,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500,019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의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금은 및 백금이고, 수입의 경우 자동차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2,275	37,591	37,370	29,015	27,118	21,368	-10,907	-33.8	-5,750	-21.2
	수입	36,318	39,650	36,158	28,877	26,576	24,724	-11,594	-31.9	-1,852	-7.0
서울	수출	2,906	2,780	2,916	2,368	2,287	1,991	-915	-31.5	-296	-12.9
	수입	7,406	8,009	7,465	5,588	5,469	5,050	-2,356	-31.8	-419	-7.7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월		2009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152,823	-6.0	133,658	-12.5
2	무선통신기기	247,922	197.3	127,537	-48.6
3	고무제품	120,706	12.7	100,729	-16.5
4	반도체	167,503	-19.8	86,221	-48.5
5	컴퓨터	84,284	-2.4	82,936	-1.6
6	자동차부품	113,764	14.1	72,725	-36.1
7	합성수지	121,319	18.4	71,128	-41.4
8	의류	83,971	-9.5	65,827	-21.6
9	금은및백금	1,619	44.0	56,342	3,379.6
10	정밀화학원료	30,801	2.9	52,717	71.2
합계		2,906,336	44.6	1,991,160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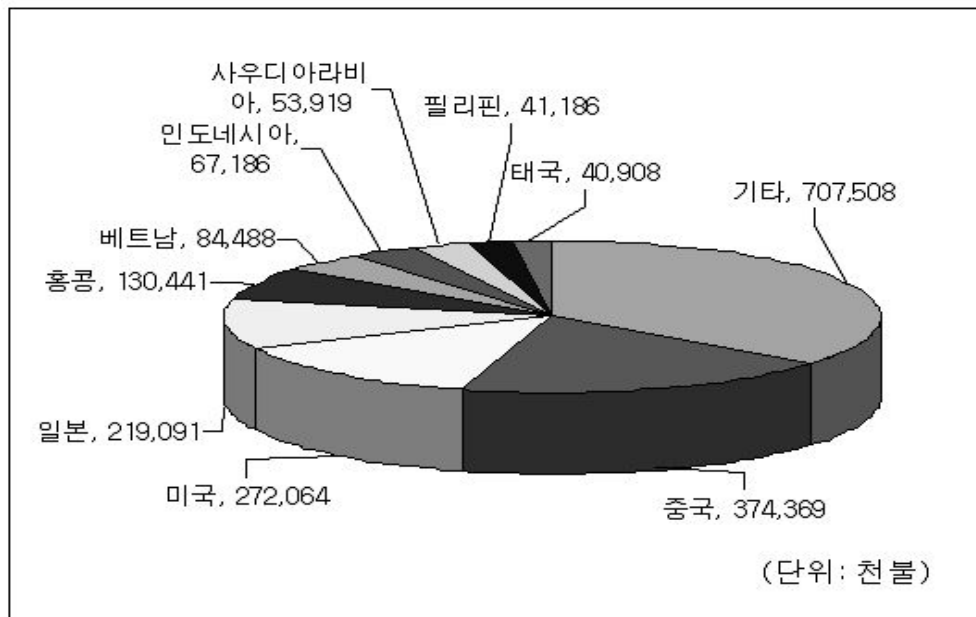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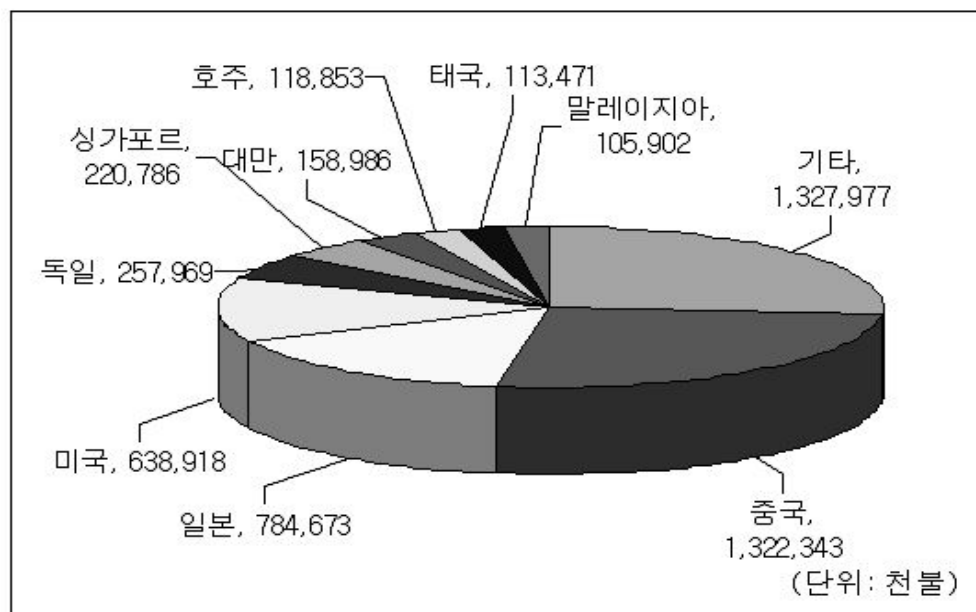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월		2009년 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84,608	96.2	500,019	-36.3
2	컴퓨터	563,318	-4.6	386,398	-31.4
3	의류	341,800	53.3	253,879	-25.7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92,888	9.7	141,627	-26.6
5	석유제품	203,955	60.0	127,401	-37.5
6	LPG	120,586	924.9	114,697	-4.9
7	철강판	156,059	0.2	112,424	-28.0
8	농약및의약품	123,332	11.9	112,059	-9.1
9	자동차	183,620	-31.0	108,533	-40.9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7,769	119.2	101,883	31.0
합계		7,406,011	43.1	5,049,878	-31.8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